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이 숙

Dept. of Home Management, Chon Nah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ook Lee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 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MBI(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Subjects were 1179 mothers of 4th-6th graders in the elementary schools from 5 small and medium cities and 5 urban cities in Korea. Pearson's γ , Cronbach's α , Cramer's ν , one-way ANOVA were conducted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reliability coefficient of the scale (α) were ranged 0.62—0.79 and 0.70—0.82.
2. The discriminant coefficients(ν) of the item were ranged 0.40—0.83.
3. By the analysis of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convergent validity coefficients(γ) were ranged 0.28—0.66; and discriminant validity coefficients(γ) were ranged 0.28—0.66.
4. Significant sex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cores of Affection, Overprotection, Achievement, and Achieve Involvement; significant SES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cores of Reasoning Guidance, Affection, Overprotection, Achievement, & Active Involvement; and significant region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cores of Authoritarian Control and Achievemen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 자아개념, 도덕성, 정서적 안정감 및 성격

등 아동 발달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Symonds, 1939; Becker, 1964; Hoffman & Saltzstein, 1967; Cox, 1970; Watters & Stinnet, 1971; Baumrind, 1973;

*이 연구는 1988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White & Watts, 1973; White, 1975; Saavedra, 1980; Rohner, 1980).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일찍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연구 주제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까지 보고된 많은 연구들은 외국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들을 우리나라에 맞도록 표준화시키지 않은채 그대로 번안만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그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Kagan, 1971; 김재은, 1974),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맞는 검사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박성연(1989)은 국민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우리나라 어머니에게 사용하기 위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로써, '애정', '적대', '통제', '과보호', '일관성있는 규제', '적극적인 참여', '합리적인 지도', '성취' 등의 8개 요인을 추출해 냈다. 그러나 박성연(1989)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정에서 문항수가 지나치게 축소됨에 따라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보완이 필요시 되었다. 이에 따라 박성연·이숙(1990)은 각 하위요인별로 적절한 문항을 추가·보완하여 이 척도를 재구성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5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바있다. 그 결과 요인분석에서 '적대'와 '통제' 요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하위요인이 '권위주의적 통제'로 묶여졌고,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는 7개 하위요인에 총 42개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해보고 표준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박성연·이숙(1990)의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중·소도시에 있는 집단까지 표집대상에 포함하여 이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및 문항 양호도를 분석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분석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 사회경제적지위,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공인 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양육행동의 정의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되고 있고 학자에 따라 태도에 초점을 맞추거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개는 양육태도와 행동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양육행동과 태도를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부모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된 진술문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B.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

1) 아동의 성

먼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Armentrout와 Burger(1972)는 9~13세의 하류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부모를 더 수용적이고 심리적 통제를 적게 주는 것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Fristod와 Karpowitz(1988)도 미국 중서부 시골 지역의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를 더 수용적이고 덜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Cox(1970)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을 가진 어머니보다 스스로를 더 애정적이라고 지각했다고 보고하였으며, Endsley, Hutcherson, Garner와 Martin(1979) 역시 딸을 가진 어머니가 더 애정적이고 칭찬을 많이 하는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냈다고 지적하였다. Zussman(1973)은 10세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빈번히 애정을 철회(withdrawal)한 반면에, 여아에게 더 자주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

였다고 분석하였다.

외국의 연구 결과들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주로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긍정적이라고 제시한 반면에, 국내의 연구들은 불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박 태욱(1980)은 중2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더 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보호적·온정적이고 자신의 요구나 행동에 대해 이해·수용해주는 것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최 보가(1980)의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이 숙(1986)은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를 더 합리지향적, 자율지향적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현순(1983)도 여아에게 어머니가 공격성 억압을 더 많이 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이 수연(1985)은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했으며, 오 성심·이 종승(1982)은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애정, 자율, 성취적 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숙(1988)은 중상류층에서만 성차가 나타났다고 분석하면서,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를 더 온정적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이 현희(1984), 조 회진(1982) 등의 연구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했으며, 공 인숙(1989)은 애정 차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통제 차원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를 더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외에 이 봉선(1989)은 학령전 아동 및 그 부모에 관한 연구에서, 남아에게는 권력 단연적, 여아에게는 설득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홍 준작(1975), 박 용(1986), 김 영순(1986), 고 애자(1988) 등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Baumrind(1971)의 연구에서도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결과는 대체로 일치되는 경향이 있었다. Rosen(1964)은 9~11세의 중류층 및 하류층 남아에 관한 연구에서, 중류층 남아는 하류층보다 부모를 더 유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수용적이며 자녀의 수행에 관심

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Jones, Rickel과 Smith(1980)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학적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양육행동(nurturance)을 많이, 제한성을 적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정희(1986)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수용적이며 민주·자율적이라고 하였으며, 박 용(1986)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이라고 하였다. 이 은수(1985)는 유치원 및 1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외향적,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존성을 조장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남 인우(1984)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사회계층이 상집단인 경우가 하집단보다 부모-자녀간에 인성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심 태창(1985)은 6학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자율적·방임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하집단은 강제적인 태도를 높게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이 숙(1988)은 가정의 SES가 높을수록 부모를 온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SES가 낮을수록 거부적·권위주의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외에 윤 현선(1984), 이 수연(1985), 이 숙(1986), 고 애자(1988) 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SES에 따른 결과는 양육태도의 각 차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Waters와 Crandall(1964)은 1940~1960년간의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평가하면서, 어머니의 강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애정 및 양육행동(nurturance)에서는 일관성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한 종혜(1980)는 SES가 높을수록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민주·자율 및 권위·통제적인 양육태도에서는 SES에 따른 차의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공 인숙(1989)은 온정차원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통제 차원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3) 거주지역

김 재은(1974)은 도시 가정의 훈육방법은 합리

적·비판적인 반면에, 지방 가정은 전체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거주지역에 따른 양육방식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전 경숙(1980)은 부·모간 양육태도의 일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일치는 도시가 농촌보다 더 큰 반면에,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일치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큰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마 송희(1979)는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도시 아동이 농촌 아동보다 부모지향적이며, 부모에 대해 더 애정적, 자율적이며 신체적 훈육은 적게 주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함 정숙(1981)은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시의 아동이 농촌의 아동보다 사랑, 성취, 합리의 차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오 성심·이 종승(1982)은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 방법

A. 연구 절차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조사가 실시되었다.

1) 1차 조사(1989. 3. 20~3. 30)

1차 조사는 전국의 5개 중소도시(안성, 순천, 원주, 충주, 안동)에서 표집한 국민학교 4~6학년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차 조사의 목적은 본 검사 도구에 의해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 가정의 SES,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의 실시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배부시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각 담임교사가 아동을 통해 간단한 설명문이 든 설문지를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100%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결손 가정이거나, 3개 이상 무응답이 있거나, 반응틀(response set)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 경우는 제외시켜서 총 467명의 자료(약 92%)만이 1차조사의 대상이 되었

다.

2) 2차 조사(1989. 4. 20~4.30)

2차 조사는 광주시의 국민학교 4~6학년 아동이 있는 100개의 중류층 가족의 부와 모, 아동에게 실시되었다. 2차 조사의 목적은 검사도구의 변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와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의 실시는 사전에 훈련을 받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7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부한 후, 국민학교 4~6학년 자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부와 모, 해당아동이 각각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100%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3개 이상 무응답이 있는 경우(8가족)를 제외한 92 가족의 자료가 통계 처리에 이용되었다.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 Cronbach의 α 계수, χ^2 -검증, 일원변량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에 관해 SPSS 및 SAS전산program에 의해 처리되었다. 구체적으로 분석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항-하위 척도간 상관관계(r), 반분신뢰도 계수 및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문항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한 반응율, 평균 및 표준편차, χ^2 계수 및 Cramer's V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와 모, 아동이 응답한 결과에 기초하여 7개의 하위 척도별 점수를 각각 계산하였고, 그에 따라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multitrait-multimethod matrix(Campbell & Fiske, 1959)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네째, 7개의 하위척도별 점수에 있어서 아동의 성, 가정의 SES,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본조사를 통하여 전국의 5개 중소도시(안성, 순천, 원주, 충주, 안동)에서 표집한 국민학교 4~6학년 아동의 어머니 467명과, 선행연구

(박 성연·이 숙, 1990)에서 표집한 5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712명을 합한 총 1,17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표집한 467명에 관한 표집방법은 5개 중소도시에서 상·중·하의 사회 계층이 골고루 표집되도록 주거 지역을 고려하여 각각 1~2개 국민학교를 선정하였고, 각 학교마다 4~6학년 중 1~2학급을 대상으로 총 500명 아동의 어머니를 표집하였다. 이 중에서 결손 가정이거나 무응답이 3개 이상있는 경우, 또는 반응틀을 나타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467명의 자료만이 실제 분석에 이용되었다. 5개 대도시에서 표집된 712명에 관한 자료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박 성연·이 숙, 1990). 한편, 2차조사의 대상선정 방법은 광주시에 있는 국민학교를 1차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표집하고 그 중에서 100가족을 우선표집하였다. 이 중에서 92가족의 자료만이 통계 처리에 이용되었다.

C.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설문지로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자녀가 설문지에 답하도록 되어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아동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적인 태도보다는 '관찰 가능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려고 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즉 '늘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반반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7개 하위 척도의 명칭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애정 :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양육행동이다.(9문항)
- 2) 권위주의적 통제 :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양육행동이다.(9문항)
- 3) 과보호 :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되도록 막고 의존성을 보상해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양육행동이다.(9문항)
- 4) 합리적인 지도 : 아동을 도와주거나 아동의 행

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왜 안되고 왜 용납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양육행동이다.(9문항)

5) 적극적인 참여 : 아동과 함께 적극적·활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동과 놀아주고, 아동이 하는 일이나 문제 해결에 대해 요청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양육행동이다.(6문항)

6) 성취 : 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양육행동이다.(6문항)

7) 일관성있는 규제 : 매일의 일과를 정해놓고 있으며, 아동에게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 대해 자신이 있고 일관적이어서,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다.(3문항)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의 대상은 본조사를 통해 5개 중소도시에서 표집한 467명과 선행연구(박성연·이숙, 1990)에서 5개 대도시에서 추출한 712명을 포함한 1,179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에 관한 자료를 지역별로 제시한 결과는 <표 1>에 나와 있다.

2. 신뢰도 분석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두 번의 선행연구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0.45 이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고(박 성연, 1989),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r)가 0.26~0.60사이에, 7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α)가 0.62~0.81사이에 분포한다고 보고되었다(박 성연·이 숙, 1990). 본 연구에서는 검사 문항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우 반분법(odd-even method)에 따라 반분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0.70~0.82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가 대도시만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실시되었으므로,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 및 내적합치도 계수를 다시 산출해 보았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1179) 단위 : 명(%)

| 교육수준 | 대도시 | | | | 중소도시 | | | |
|--------------|-----|------|-----|------|------|------|-----|------|
| | N | | % | | N | | % | |
| | 무 학 | 1 | .1 | 4 | .6 | 3 | 0.6 | 3 |
| 국민학교 중퇴 및 졸업 | 27 | 3.8 | 58 | 8.1 | 35 | 7.5 | 54 | 11.6 |
| 중학교 중퇴 및 졸업 | 73 | 10.3 | 153 | 21.5 | 58 | 12.4 | 125 | 26.8 |
|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 242 | 34.0 | 298 | 41.9 | 195 | 41.0 | 208 | 44.5 |
| 대학교 중퇴 및 졸업 | 297 | 41.7 | 186 | 26.1 | 155 | 33.2 | 77 | 16.5 |
| 대학원 졸업 이상 | 72 | 10.1 | 12 | 1.7 | 21 | 4.5 | 0 | 0 |
| 무 응 답 | 0 | 0 | 1 | 1 | 0 | 0 | 0 | 0 |
| 계 | 712 | 100 | 712 | 100 | 467 | 100 | 467 | 100 |

| 연 령 | 대도시 | | | | 중소도시 | | | | 자녀의 수 | 대도시 | | | | 중소도시 | | | |
|--------|-----|------|-----|------|------|------|-----|------|-------|-----|------|-----|------|------|---|---|---|
| | 부 | | 모 | | 부 | | 모 | | | N | | % | | N | | % | |
| | N | % | N | % | N | % | N | % | | N | % | N | % | N | % | N | % |
| 35세 미만 | 8 | 1.1 | 60 | 8.4 | 15 | 3.2 | 88 | 18.8 | 1명 | 17 | 2.4 | 14 | 3.0 | | | | |
| 35-40세 | 190 | 26.7 | 436 | 61.2 | 153 | 32.8 | 260 | 55.7 | 2명 | 385 | 54.1 | 217 | 46.5 | | | | |
| 41-45세 | 366 | 51.4 | 176 | 24.7 | 223 | 47.8 | 95 | 20.3 | 3명 이상 | 308 | 43.3 | 235 | 50.3 | | | | |
| 45세 이상 | 148 | 20.8 | 39 | 5.1 | 75 | 16.1 | 23 | 4.9 | 무 응 답 | 2 | .2 | 1 | 0.2 | | | | |
| 무 응 답 | 0 | 0 | 1 | .1 | 1 | 0.2 | 1 | 0.2 | | | | | | | | | |
| 계 | 712 | 100 | 712 | 100 | 467 | 100 | 467 | 100 | | 712 | 100 | 467 | 100 | | | | |

| 가정의 SES | 분리 기준 (점) | 대도시 | | 중소도시 | | 대상아동의 성 별 | 대도시 | | 중소도시 | |
|---------|--------------|-----|------|------|------|--------------|-----|------|------|------|
| | | N | % | N | % | | N | % | N | % |
| 하 류 | 3-8 | 82 | 11.5 | 74 | 15.8 | 남 | 356 | 50.0 | 211 | 45.2 |
| 중 류 | 9-13 | 363 | 51.0 | 288 | 61.7 | 여 | 356 | 50.0 | 256 | 54.8 |
| 상 류 | 14-18 | 267 | 37.5 | 105 | 22.5 | | | | | |
| 계 | | 712 | 100 | 467 | 100 | 계 | 712 | 100 | 467 | 100 |

그 결과 문항과 하위 척도간 상관계수는 0.24~0.83
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0.62~0.79로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2).

3. 문항 양호도 분석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들의 양호도를

〈표 2〉 문항 양호도 분석결과

| 하위척도 | 문항 | 문항점수의 평균 | 문항점수의 표준편차 | 문항-척도간 상관계수 | χ^2 | Cramer's V | 문항제외시 α |
|----------------------------|----|-------------|---------------|----------------|-----------|---------------|-------------------|
| 합리적지도 ($\alpha=0.79$) | 1 | 3.80 | 0.89 | 0.49 | 120.05*** | 0.58 | 0.76 |
| | 2 | 3.75 | 0.92 | 0.41 | 101.31*** | 0.53 | 0.77 |
| | 3 | 4.00 | 0.84 | 0.54 | 133.75*** | 0.61 | 0.75 |
| | 4 | 3.60 | 0.92 | 0.39 | 126.64*** | 0.59 | 0.77 |
| | 5 | 4.00 | 0.77 | 0.56 | 110.14*** | 0.55 | 0.75 |
| | 6 | 3.98 | 0.71 | 0.57 | 106.12*** | 0.54 | 0.75 |

| 하위척도 | 문항 | 문항점수의 평균 | 문항점수의 표준편차 | 문항-척도간 상관계수 | χ^2 | Cramer's V | 문항제외시 α |
|----------------------------------|----|-------------|---------------|----------------|-----------|---------------|-------------------|
| 애 정 ($\alpha=0.78$) | 7 | 3.88 | 0.91 | 0.24 | 61.34*** | 0.41 | 0.80 |
| | 8 | 3.85 | 0.73 | 0.54 | 130.27*** | 0.60 | 0.75 |
| | 9 | 3.92 | 0.76 | 0.56 | 100.50*** | 0.53 | 0.75 |
| | 10 | 3.96 | 0.79 | 0.48 | 82.00*** | 0.53 | 0.76 |
| | 11 | 3.69 | 0.91 | 0.47 | 111.22*** | 0.61 | 0.76 |
| | 12 | 3.48 | 1.15 | 0.47 | 141.35*** | 0.69 | 0.76 |
| | 13 | 3.33 | 1.11 | 0.45 | 132.78*** | 0.67 | 0.76 |
| | 14 | 3.50 | 1.09 | 0.51 | 146.08*** | 0.70 | 0.75 |
| | 15 | 3.50 | 1.10 | 0.48 | 165.02*** | 0.75 | 0.76 |
| 권위주의적 통제 ($\alpha=0.66$) | 16 | 3.52 | 0.90 | 0.48 | 127.99*** | 0.66 | 0.76 |
| | 17 | 3.67 | 1.00 | 0.48 | 122.74*** | 0.64 | 0.76 |
| | 18 | 3.71 | 0.86 | 0.39 | 77.69*** | 0.51 | 0.77 |
| | 19 | 2.66 | 1.06 | 0.35 | 107.75*** | 0.58 | 0.62 |
| | 20 | 2.98 | 1.10 | 0.30 | 99.44*** | 0.56 | 0.63 |
| | 21 | 2.07 | 0.79 | 0.35 | 87.17*** | 0.52 | 0.62 |
| | 22 | 2.00 | 0.80 | 0.39 | 84.33*** | 0.52 | 0.62 |
| | 23 | 2.25 | 0.94 | 0.29 | 83.51*** | 0.51 | 0.63 |
| | 24 | 3.20 | 1.07 | 0.37 | 129.22*** | 0.64 | 0.62 |
| 과보호 ($\alpha=0.63$) | 25 | 2.51 | 1.07 | 0.41 | 129.80*** | 0.64 | 0.61 |
| | 26 | 2.10 | 0.93 | 0.27 | 61.40*** | 0.44 | 0.64 |
| | 27 | 3.30 | 1.06 | 0.26 | 81.15*** | 0.51 | 0.64 |
| | 28 | 3.00 | 1.21 | 0.34 | 108.22*** | 0.60 | 0.60 |
| | 29 | 2.22 | 1.05 | 0.28 | 69.21*** | 0.48 | 0.61 |
| | 30 | 2.38 | 0.92 | 0.34 | 91.39*** | 0.55 | 0.60 |
| | 31 | 2.30 | 1.00 | 0.22 | 48.10*** | 0.40 | 0.63 |
| | 32 | 2.58 | 1.11 | 0.46 | 122.85*** | 0.64 | 0.57 |
| | 33 | 2.50 | 1.06 | 0.31 | 83.38*** | 0.53 | 0.61 |
| 성취 ($\alpha=0.66$) | 34 | 2.59 | 1.06 | 0.37 | 107.70*** | 0.60 | 0.59 |
| | 35 | 2.80 | 1.04 | 0.24 | 83.70*** | 0.53 | 0.62 |
| | 36 | 3.76 | 0.97 | 0.26 | 60.87*** | 0.45 | 0.62 |
| | 37 | 4.14 | 0.69 | 0.50 | 116.31*** | 0.68 | 0.55 |
| | 38 | 3.03 | 1.14 | 0.27 | 114.46*** | 0.67 | 0.65 |
| | 39 | 4.13 | 0.69 | 0.41 | 89.30*** | 0.59 | 0.58 |
| | 40 | 3.79 | 0.93 | 0.41 | 127.91*** | 0.71 | 0.57 |
| | 41 | 4.09 | 0.82 | 0.40 | 120.01*** | 0.69 | 0.58 |
| | 42 | 4.25 | 0.57 | 0.30 | 76.03*** | 0.55 | 0.62 |
| 적극적인 참여 ($\alpha=0.72$) | 43 | 3.65 | 1.07 | 0.46 | 115.34*** | 0.65 | 0.68 |
| | 44 | 2.84 | 1.09 | 0.44 | 140.44*** | 0.72 | 0.69 |
| | 45 | 2.94 | 1.14 | 0.47 | 169.94*** | 0.79 | 0.68 |
| | 46 | 3.41 | 1.08 | 0.52 | *** | 0.76 | 0.66 |
| | 47 | 3.18 | 1.12 | 0.50 | 168.52*** | 0.78 | 0.67 |
| | 48 | 2.76 | 1.20 | 0.34 | 121.56*** | 0.67 | 0.72 |
| 일관성있는 규제 ($\alpha=0.62$) | 49 | 2.96 | 1.18 | 0.34 | 226.55*** | 0.83 | 0.64 |
| | 50 | 3.39 | 1.02 | 0.49 | 211.75*** | 0.83 | 0.41 |
| | 51 | 3.45 | 1.03 | 0.44 | 197.06*** | 0.77 | 0.48 |

<표 3>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 하위 척도 | Mother | | | | | | Child | | | | | | Father | | | | | | |
|------------------|---------|--------|--------|--------|--------|--------|--------|--------|--------|--------|--------|--------|--------|--------|---------|---------|-------|-------|--------|
| | I | II | III | IV | V | VI | III | IV | V | VI | III | IV | V | VI | III | IV | V | VI | |
| Mother 합리적 지도(I) | .82*** | | | | | | | | | | | | | | | | | | |
| 에 정(II) | | | | | | | | | | | | | | | | | | | |
| 권위주의적통제(III) | | | | | | | | | | | | | | | | | | | |
| 과 보 호(IV) | | | | | | | | | | | | | | | | | | | |
| 성 취(V) | | | | | | | | | | | | | | | | | | | |
| 적극적인 참여(VI) | | | | | | | | | | | | | | | | | | | |
| 일관성있는 규제(VII) | | | | | | | | | | | | | | | | | | | |
| Child 합리적 지도(I) | .64*** | .54*** | .05 | .15 | .20* | .60*** | .25** | | | | | | | | | | | | |
| 에 정(II) | .62*** | .57*** | .03 | .25** | .39** | .44*** | .29** | .79*** | | | | | | | | | | | |
| 권위주의적통제(III) | -.00 | -.09 | .41*** | .26** | .11 | -.07 | .21* | -.19* | -.16 | | | | | | | | | | |
| 과 보 호(IV) | .43*** | .44*** | .09 | .28** | .04 | .13 | .06 | .34*** | .35*** | .45*** | | | | | | | | | |
| 성 취(V) | .49*** | .39*** | .04 | .22* | .39*** | .41*** | .23* | .95*** | .69*** | -.19* | .21* | | | | | | | | |
| 적극적인 참여(VI) | .54*** | .52*** | -.04 | .11 | .07 | .66*** | .22* | .76*** | .71*** | -.13 | .33** | .59*** | | | | | | | |
| 일관성있는 규제(VII) | .52*** | .51*** | .05 | .08 | .11 | .56*** | .37*** | .79*** | .66*** | -.25** | .26** | .63*** | .71*** | | | | | | |
| Father 합리적 지도(I) | .58*** | .35*** | .21* | .42*** | .50*** | .32** | .42*** | .46*** | .60*** | .10 | .11 | .50*** | .35** | .31** | | | | | |
| 에 정(II) | .52*** | .45*** | -.08 | .08 | .13 | .41*** | .23* | .52*** | .58*** | -.22* | .06 | .51*** | .52*** | .48*** | .68*** | | | | |
| 권위주의적통제(III) | -.25*** | -.19* | .10 | -.01 | -.00 | -.03 | -.14 | -.21* | -.22* | .26** | .10 | -.28** | -.04 | -.23 | -.36*** | -.44*** | | | |
| 과 보 호(IV) | .30** | .21* | .14 | .39*** | .21* | .14 | .07 | .20* | .21* | .39*** | .51*** | .14 | .15 | .09 | .28** | .20* | .19* | | |
| 성 취(V) | .26** | .10 | .13 | .24* | .47*** | .23* | .28** | .41*** | .41*** | -.14 | -.19* | .58*** | .28** | .34*** | .70*** | .59*** | -.21* | -.29* | |
| 적극적인 참여(VI) | .53*** | .46*** | -.11 | .09 | .01 | .36*** | .22* | .36*** | .35*** | .12 | .39*** | .20* | .47*** | .36*** | .27** | .40*** | -.02 | .35** | .02 |
| 일관성있는 규제(VII) | .57*** | .39*** | .10 | .27** | .22 | .39*** | .39*** | .63*** | .61*** | .06 | .28** | .55*** | .57*** | .57*** | .66*** | .57*** | -.23* | .26** | .51*** |

* 밑줄친 수치가 validity diagonal임

검증하기 위해 7개 하위척도별로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χ^2 및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참조). 변별도 계수(V)는 각 하위척도별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상 27%, 하 27%로 분류하여 문항별 반응에 의해 계산해 냈는데, 7개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51개 문항에서 .40~.83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 양호도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박성연·이숙, 1990)에서 0.50~0.95 사이에 분포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4. 타당도 분석

a.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구인 타당도는 선행연구(박성연·이숙, 1990)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 7개 하위척도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아동이 각각 지각한 결과를 가지고 'multitrait-multimethod matrix(Campbell & Fiske, 1959)를 만들어 구인타당도를 분석하였다. Campbell과 Fiske(1959)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convergent validity와 discriminant validity를 증명하여 구인타당도(construct)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먼저,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분석하기 위해 같은 특성을 다른 평가자들이 측정한 결과(within trait-between raters)를 비교한 결과, 상호상관계수인 validity diagonal 값에서 '권위주의적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6개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1)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한편, discriminant validity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특성들간의 상관과 같은 특성을 여러 평가자에 의해 측정된 상관을 비교한 결과같은 특성간의 상관이 다른 특성간의 상관보다 더 높았다.(표3 참조)

b. 공인 타당도(concurrent validity)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가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독립변인들에 따라 어떻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 분석하기 위하여, 자녀의 성, SES, 지역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7개 하위척도에서의 점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녀의 성에 따라 일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서 보면,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는 애정,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

<표 4> 자녀의 성에 따른 일원변량 분석결과(N=1179)

| 하 위 척 도* | 자녀의 성 | 평균(점) | SD | F |
|---------------|-------|-------|------|-------|
| 합 리 적 지 도 | 남 | 34.90 | 4.24 | 0.16 |
| | 여 | 34.79 | 4.70 | |
| 애 정 | 남 | 32.75 | 5.05 | 5.43 |
| | 여 | 32.04 | 5.54 | |
| 권 위 주 의 적 통 제 | 남 | 23.70 | 4.62 | 2.64 |
| | 여 | 23.26 | 4.67 | |
| 과 보 호 | 남 | 24.43 | 5.01 | 5.53 |
| | 여 | 23.76 | 4.77 | |
| 성 취 | 남 | 23.97 | 2.84 | 12.28 |
| | 여 | 23.36 | 3.16 | |
| 적 극 적 인 참 여 | 남 | 19.17 | 3.78 | 5.15 |
| | 여 | 18.64 | 4.25 | |
| 일 관 성 있 는 규 제 | 남 | 9.81 | 2.29 | 1.00 |
| | 여 | 9.67 | 2.52 | |

* P<.05 ** P<.01 *** P<.001

* 각 하위척도의 점수 범위 :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9-45점)
성취, 적극적인 참여 (6-30점)
일관성있는 규제 (3-15점)

여의 4개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에게서 보다 남아에게서 더 애정(32.75)32.04 ; P<.05), 과보호(24.43)23.76 ; P<.05), 성취(23.97)23.36 ; P<.001), 적극적인 참여(19.17)18.64 ; P<.05)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렇듯 남아에게 더 애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여주며,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SES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합리적 지도, 애정,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의 5개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합리적 지도, 애정, 성취, 적

극적인 참여에서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P<.001), 중류층 이하일 때 상류층보다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었다(P<.01).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한종혜, 1980 ; 공인숙, 1989 ; 이은수, 1985)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표 6〉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제시되었는데, 권위주의적 통제 및 성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통제 및 성취 하위척도에서 보면, 대도시의 어머니가 중소도시의 어머니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23.72)23.06, P<.05 ; 23.80)23.43, P<.05).

〈표 5〉 SES에 따른 일원변량 분석결과(N=1179)

| 하 위 척 도 | SES | 평균(점) | SD | F | Grouping* |
|-----------|-----|-------|------|-------|-----------|
| 합 리 적 지 도 | 하류층 | 33.61 | 4.89 | 10.67 | A |
| | 중류층 | 34.74 | 4.51 | | B |
| | 상류층 | 35.54 | 4.12 | | C |
| 애 정 | 하류층 | 30.33 | 5.45 | 20.37 | A |
| | 중류층 | 32.25 | 5.37 | | B |
| | 상류층 | 33.48 | 4.87 | | C |
| 권위주의적통제 | 하류층 | 23.87 | 4.35 | 0.91 | A |
| | 중류층 | 23.49 | 4.76 | | A |
| | 상류층 | 23.28 | 4.57 | | A |
| 과 보 호 | 하류층 | 24.67 | 4.50 | 6.99 | A |
| | 중류층 | 24.38 | 4.79 | | A |
| | 상류층 | 23.32 | 5.12 | | B |
| 성 취 | 하류층 | 22.73 | 3.13 | 14.07 | A |
| | 중류층 | 23.56 | 3.03 | | B |
| | 상류층 | 24.20 | 2.87 | | C |
| 적극적인 참여 | 하류층 | 16.74 | 4.30 | 32.84 | A |
| | 중류층 | 18.92 | 3.94 | | B |
| | 상류층 | 19.77 | 3.74 | | C |
| 일관성있는규제 | 하류층 | 9.60 | 2.71 | 0.79 | A |
| | 중류층 | 9.71 | 2.39 | | A |
| | 상류층 | 9.86 | 2.32 | | A |

* P<.05 ** P<.01 *** P<.001

*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집단화로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 6〉 지역에 따른 일원변량 분석결과(N=1179)

| 하 위 척 도 | 지 역 | 평균(점) | SD | F |
|-----------|------|-------|------|------|
| 합 리 적 지 도 | 대도시 | 34.88 | 4.44 | 0.10 |
| | 중소도시 | 34.78 | 4.53 | |

| | | | | |
|---------|------|-------|------|------|
| 애 정 | 대도시 | 32.41 | 5.25 | 0.02 |
| | 중소도시 | 32.34 | 5.40 | |
| 권위주의적통제 | 대도시 | 23.73 | 4.68 | 6.16 |
| | 중소도시 | 23.06 | 4.56 | |
| 과 보 호 | 대도시 | 24.05 | 4.96 | 0.09 |
| | 중소도시 | 24.15 | 4.77 | |
| 성 취 | 대도시 | 23.80 | 3.06 | 4.94 |
| | 중소도시 | 23.43 | 2.95 | |
| 적극적인 참여 | 대도시 | 18.98 | 3.82 | 0.71 |
| | 중소도시 | 18.78 | 4.33 | |
| 일관성있는규제 | 대도시 | 9.69 | 2.40 | 0.60 |
| | 중소도시 | 9.80 | 2.43 | |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5개 중소도시에서 467명을 표집하였고, 선행연구(박성연·이숙, 1990)에서 표집한 712명을 포함한 1,179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 문항 양호도 분석, 타당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α) 및 반분 신뢰도 계수(r)를 산출한 결과 $\alpha=0.62\sim0.79$ 사이, $r=0.70\sim0.82$ 사이에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항의 양호도를 검토하기 위해 산출한 변별도 계수(V)는 0.40~0.83 사이에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 7개 하위척도에 대해 부와 모, 아동이 각각 지각한 결과를 기초로 multitrait-multimethod matrix를 분석한 결과, 수렴 타당도 계수(r)는 0.28~0.66 사이로 나타났고, 변별 타당도 계수(r)는 모-아동간은 0.28~0.66, 부-아동간은 0.26~0.58, 부-모간은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특별히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0.10) 0.26~0.58로 나타났다.

4. 공인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녀의 성, SES, 지역에 따른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에 따른 차이는 애정,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의 4개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SES에 따른 차

이는 합리적 지도, 애정,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의 5개 하위척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권위주의적 통제 및 성취의 2개 하위척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국민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에 비교적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도구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주로 국외의 검사도구를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직접 제작·개발하여 7개 요인을 추출해 냈으므로 비교할만한 적당한 준거자료가 없어서 외적 타당도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실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앞으로 문항수가 다소 부족한 일부 하위 척도의 문항들을 추가·보완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타당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표준화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고애자(1988). 어머니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2)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10(1), 64-78.
 - 3) 박 용(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영순(1986). 어머니의 육아방식과 아동의 인지적 조망 수용능력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재은(1974). 한국 가족의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6) 남인우(1983).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성연(1989).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 워크샵.
 - 8) 박성연·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9) 박태옥(198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마송희(1979). 부모의 양육태도와 동료의 유감에 대한 아동의 저항과의 상호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심태창(1985). 가족 형태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12)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노우트, 11(1).
 - 13) 윤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이봉선(1989).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도덕 판단력 및 그 관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 충족 지연행동에 관한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 숙(1986).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4(4), 199-207.
 - 17)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정희(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이현순(198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현희(1984).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특성과의 상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전경숙(1980). 부모간의 양육태도의 일치도와 아동의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최보가(1980).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지. 교육연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22, 208-213.
 - 25)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홍준작(1975).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간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Armentrout, J. A. & Burger, G. K.(1972),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t five grade levels. *Developmental Psychology*, 7(1), 44-48.
 - 28)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4.
 - 29) Baumrind, D.(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D. Pick(Ed). *Child Psychology*, Vol. 7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30)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and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Russell Sage Foundation.
- 31) Campbell, D. T. & Fiske, D. W.(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 81-105.
- 32) Cox, S. H.(1970). Intrafamily comparison of loving-rejecting child-rearing practice. *Child Development*, 41, 437-448.
- 33) Endsley, R. C., hutcherson, M. A., Garner, A. P., and Martin, M. J.(1979). Interrelationships among selected maternal behaviors, authoritarianism, and preschool children's verbal and nonverbal curiosity. *Child Development*, 50(2), 331-339.
- 34) Fristod, M. A & Karpowitz, D. H.(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modified form. *Psychological Reports*, 62, 665-666.
- 35) Hoffman, M. L., and Saltzstein, H. 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7.
- 36) Jones, D. C., Rickel, A. U. and Smith, R. L. (198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and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3), 241-242.
- 37) Kagan, J.(1971). *Personality Development*. Harcourt Brace Joranovich, Inc.
- 38) Rohner, R. P.(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 an overview. *Behavior Science Research*, 15(1), 1-22.
- 39) Rosen, B. C.(1964). Social class and the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 *Child Development*, 35, 1147-1153.
- 40) Saavedra, J. M.(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evaluation of puerto 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41) Symonds, P. M.(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 Appletoncentury, Crofts, Inc.
- 42) Walter, J., and Sinnott, N.(1971). *Parent-child relationships ;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
- 43) Water, E. and Crandall, V. J.(1964). Social clas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from 1940 to 1960. *Child Development*, 35, 1021-1032.
- 44) White, B. L.(1975). Critical influences in the origins of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1(4).
- 45) White, B. L. & Watts, J. C.(1973). *Experience and environment : Major Influences on Development of the Young Child*, Vol.1,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 46) Zussman, J. U.(1973). Sex differences in parental discipline techniques. Manuscript in preparation. Stand ford university.